

“광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 저조”

■ 행안위 유정현 의원 국감 자료

올해 1건 집행...3년간 개인 지원 전무

광주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데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국 평균 3.2%보다 높은 4.2%로 광역시 가운데 1위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올해 9월까지 단 1건만 집행돼 운용률이 0.57%로 전국 평균 2%에 비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최근 3년간 기금 집행률은 2006년 4.9%, 2007년 10.8%, 2008년 0.57%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개인은 담보능력이 부족한데다 근저당 설정 등을 할 수 없어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것

로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담보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이 기금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보대출이 아닌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 기금의 운영수익률도 2006년(3.3%)과 2007년(4.5%)

에는 상대적으로 잘 운영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0.5%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운용수익이 0원이었고, 남구는 올해 0.05%에 머물렀다. 유 의원은 “조례에 적립액을 명시해 기금 조성에 힘쓰고 개인의 대출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림로 국화 꽃길

광주시 북구 임동 서림로 주변 상가 주민들은 최근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무등경기장~북성중 구간 2km의 인도 끝자락에 국화 화분 500여개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꽃길을 조성했다. 시민들이 국화 꽃길을 오가며 그윽한 향기를 만끽하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재난 대비 태세 허술

자체 지진 대비 훈련 없어...재난 기금 적립액도 최하위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한 광주시의 대비 태세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방방재청이 시행한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지진 시뮬레이션 결과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광주에서 166명의 사상자와 9천5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충북 보은군 산외면 동쪽 3.66km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진앙지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과 비교할 때 광주의 사상자수가 훨씬 많은 것이다. 부산은 사망 21명, 부상 2천994명, 경남은 사망 56명, 부상 5천 143명으로 예측됐으며, 울산은 사망 104명, 부상 5천860명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광주시의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소방 인원이 2007년 315명에서 올해는 93명으로 70% 감소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진대비훈련이나 재난대비훈련은 없었다. 김유정(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01억원으로 법정 적립액(527억원)의 38%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내년 광주시 교육 예산 어떻게 쓰이나

초·중·고 ‘짬통교실’·노후 화장실 개선

시설 사업 570억 3.4배 증가...‘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에 752억

짬통 더위에 시달리는 교실, 노후화된 화장실 등 광주시내 초·중·고교의 시설이 내년에는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일 광주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광주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569억 5천 500만원으로 올해 168억 4천 600만원에 비해 3.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책상 교체에 50억원, 화장실 개선 164억원, 급식실 개선 60억원, 냉난방 시설 개선 200억원 등이 쓰이게 된다.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보수 등을 요구한 60

여개 학교의 요구를 100% 예산안에 반영했다. 책상교체 10년 이상 된 곳은 모두 교체될 계획이다. 또 하나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수·학습 활동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464억 4천 1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점이다. 내년 28개 단위사업과 91개 세부사업에 총 752억 7천 100만원이 사용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올해 13억 9천 500만원보다 3.4배 증가한 48억 1천 400만원이 책정됐으며, 영어교사 연수 예산 역시 9억 4천 400만원에서 21억 6천 400만원으로 2.3배 늘었다. 영재교육 활성화가 7억 9천 900만

원에서 14억 1천 300만원으로, 유아 교육 진흥 사업이 26억 700만원에서 37억 2천 100만원으로, 특수교육 진흥 사업이 36억 2천 400만원에서 50억 2천 1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1조 1천 926억 3천 300만원에서 551억 6천 700만원이 증가한 1조 2천 477억 9천 700만원이다. 안순일 교육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성교육, 창의력 키우는 교육 과정 운영,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복지 증진, 신뢰받는 교육행정, 외국어 교육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부채·적자 급증 방만 경영”

국감자료 “고가 장비 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 못해”

광주디자인센터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방만 경영으로 부채가 급격히 늘고 경영실적도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설립된 광주디자인센터가 2차례에 걸쳐 26억 5천여만원 상당의 고가 장비를 구입한 후 사용실적도 저조하고 장비를 운영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센터측은 금수미지 마킹기 구입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책정했다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가격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6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난 9월 ‘지역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했다가 특혜성 시비가 일자 공개모집에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고도 담당자나 총괄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2005년 4천 500만원이었던 부채가 2007년에는 4억 7000만원으로 10배나 증가한 반면

경영실적은 2006년 1억 6천만원, 2007년엔 9억 6천만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이윤석(무소속) 의원이 광주디자인센터가 무원칙한 호봉적용, 장비구입 및 사무실 임대 문제 등으로 설립 목적과 같은 시너지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디자인 업무와 무관한 인사들이 채용돼 있고 직급과 호봉조정에 일관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직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조달의뢰나 수의계약, 3자단가 등을 통해 공사와 물품 구입을 하고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업체는 많지 않다”며 시의 체계적인 감사를 주문했다. /정후식기자 who@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대구광역시달서구) 053-227-9940
총장점 (광주광역시) 062-227-9970

www.goonhp.co.kr

고급적인 진료성령 '병원' 전문 의료진

일중한의원

임상진료분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외과, 한방소아과, 한방산부인과, 한방안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영상의학과, 한방영상의학과, 한방영상의학과

062) 676-1075

www.diyam.com

아이엘리시아

싱apore 판매, 출판, 각종 보령 및 행사, 각종, 각종, 각종

062) 671-1199